



스무번째 이야기

하나님 사랑은 랜선을 타고

[2020 선교사 사역현장 ⑥]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이때, 감사하게도 마음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하는 일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먼 거리에 있는 선교사님의 소식을 이제는 가지 않아도 화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게 된 일입니다. 이번 주 'BEE수'에서는 영상을 통해 선교지 소식을 전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김용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BEE수 : 선교사님~^^ 위드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울한 소식이 많았는데 넘 기쁜 소식이 있
더라고요. Youtube 채널 운영자로 데뷔하시
고 수상도 하셨다던데 어떤 대회에서 무슨
상을 받으셨는지요?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선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선교지에서 귀국하고, 선교지에 머물더라도 현지인을 자유롭게 대면할 수 없어서 온누리 교회 2000선교본부에서 선교사들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비대면 원격사역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선교사 누구나 쉽게 Youtube 채널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참가자들이

과제로 제출한 동영상이나 Youtube 채널을 평가해서 시상도 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만든 [김용달 tv] 채널이 장려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상으로 꼭 필요했던 성능 좋은 마이크와 멋진 삼각대를 받았습니다. 상품 비용보다 더 많은 배송 비용을 들여 가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크리에이터 김용달 선교사

상으로 받은
마이크와 삼각대

BEE수 : 아! [김용달 tv]라고요? 사실 저도 몇 개를 시청했는데 무척 흥미롭더라고요, 콘텐츠 개발, 영상 녹화, 그리고 편집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게다가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요. 선교사님의 멋진 영상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김용달 tv : Youtube 채널 이름은 워낙 제 이름이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브랜드파워가 있어서 [김용달 tv]로 정했어요. 예전과 달리 채널 운영과 제작은 핸드폰, 노트북,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독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익숙하지만 아프리카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현지 모습들을 정리해서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하였고, 저희 가족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야기(Africa Life)와 사역 다니며 경험한 것(Missions), 비대면 BEE 강의용 자료(Lectures)로 구분해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BEE수 : 선교사님께서 이제 가나가 많이 익숙해지셨군요! 언제부터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하셨나요?



: 저희 가정은 2009년 8월 온누리 교회와 BEE Korea의 파송을 받아 가나에 왔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에서 그룹을 만들고 제자를 양육하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도록 가르쳐 왔습니다. 이곳 성도들의 예배는 부러울 정도로 열정적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에 ‘실천’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파송 받을 당시 모습

BEE수 : 벌써 11년이란 세월이 흘렀군요. 예성이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어린 예지와 예성을 키우며 에피소드도 많을 듯한데 몇 개 소개 좀 해 주세요.



: 저희가 2009년 파송 받을 때 예지는 3살, 예성이는 태중에 있었습니다. 예지를 제왕절개로 출산했기 때문에 의료시설이 낙후한 가나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을지 우려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성이를 가나의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말라리아였습니다. 모기들이 집 안으로 침투해 물어대니 온 가족이 돌아가며 말라리아 열병을 치러야 했습니다. 특히 어린 예지와 예성이가 연달아 말라리아에 걸려 고열로 끙끙거릴 때는 밤새 잠 못 자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말라리아 증세가 보이면 말라리아 약을 먹고 꼭 쉬면서 회복합니다.

BEE수 : 말라리아에 걸린 자녀들을 보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을 텐데.... 강혜경 선교사님은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요. 사모님이 활동적이신데 Youtube 채널을 같이 운영하고 계신가요?



: 그렇지요. 가나에 살면서 말라리아에 걸려 해열제도 먹여도 고열에 시달리는 어린아이들을 지켜보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특히 엄마인 강혜경 선교사는 예민해서 잠도 못 자고 간호하느라 아이들 대신 말라리아 후유증을 앓고는 했어요. 아시겠지만 강혜경 선교사는 매우 활동적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못하는 댓글 달기를 잘하여 저를 대신해서 카톡이나 페이스북, 유튜브에 달린 사람들의 댓글에 일일이 답변을 해 줍니다. 정말 저의 좋은 돕는 배필이죠! 요즘은 예지와 예성이도 Youtube를 한다고 난리입니다. 예성이는 한인회관에 가서 동영상 찍어 음악을 넣고 편집해서 제게 보여줍니다. 저희 때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이제는 New Normal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도전이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기회이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예지 생일 강혜경 선교사가 만든 마스크

BEE수 : 와! 예성이가 벌써 편집을요?^^ 예지는 미술을 잘하던데 Youtube 채널은 화학을 콘텐츠로 하더라구요. 예지와 예성이는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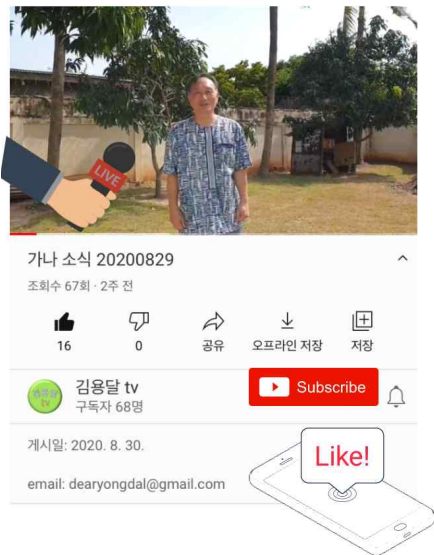


: 예지가 습작으로 그린 그림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몇 분이 보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화학 수업의 과제로 실험 과정을 비디오로 제작하는 숙제가 있었는데 스스로 만든 결과를 보고 나름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수준의 화학실험 비디오를 만들려고 하는데 학기 중에는 바빠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과정을 통해서 예지는 화학을 좋아하게 됐고 앞으로 화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합니다. 물론 눈치 빠른 예성이는 아빠를 따라 물리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합니다. 두 아이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BEE수 : 앞으로 [김용달 tv]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와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달 tv : 시간이 되는 대로 [김용달 tv]를 통해 다른 곳에서는 접하기 힘든 흥미롭고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될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선교를 이해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데 도전과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주세요.

- 1) 가족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 2) 예지와 예성이가 학습을 좋아하고 정체성이 분명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도록
- 3) 서아프리카 국가들에 교회 중심의 훈련센터가 지속적으로 세워지도록
- 4) 훈련된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제자양육에 신실하게 동참하도록
- 5) 생활에 필요한 재정과 학비가 채워지도록



선교지  GHANA



가나의 과일 - 이 열매의 겉은 벨벳 느낌의 촉감과 속은 씨앗을 둘러싼 막이 있는데, 신맛과 단맛의 오묘한 맛이 나는 열매이다. 가나에서는 ‘Yooyi’, 아프리카 ‘베리’라고 한다. 이 과일은 위염 및 고혈압, 말라리아, 구강청결, 염증완화, 황달 및 당뇨 등에 효능이 있다.

BEE 소식

1. 2020년 하나님의 “준비하라”라는 음성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준비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암4:12).”
2. 깊어가는 가을,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9월 되세요.
이번 주 암송 구절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계3:20).”
3. 가을과 함께 시작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온비아 및 심화 과정 온라인 세미나에 함께하여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리 : 정주영 편집: 최선]